

 보건복지부	<h1>보 도 해 명 자 료</h1>			
배 포 일	2020. 2. 5 / (총 9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	팀 장 담 당 자	김 기 남 이 정 우	전 화	044-202-3810 044-202-3812

“(단독)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 대신 ‘입국관리앱’ 설치 추진”

(2월 5일자 중앙일보, “외교부 중심으로 입국 금지 대신 중국인 대상 GPS 이용 위치추적 앱 개발” 보도 관련)

□ 기사 주요 내용

- 특별입국절차 보안을 위해 ‘입국관리 앱’ 설치하여 그들의 국내 위치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
 - 앱의 주요 기능은 GPS(위성위치확인) 기능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중국인이 국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이면 신속히 위치와 동선을 파악해 격리 치료할 수 있음

□ 해명 내용

- 앱(App) 개발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의 이용 편의성과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행 시 공식 설명할 예정임
 - 다만, 기사 내용 중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실행 시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GPS(위성위치확인) 기능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검토한 바 없음